

코오롱, 바이오사업 강화 30억원 출자

코오롱이 바이오 사업부문을 강화한다.

코오롱은 2006년 최근 이사회를 열고 주당 3만원씩 10만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결의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3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의 원료의약품 사업부문과 코오롱유화의 의약품중간체 제조 사업부문을 각각 95억원, 25억원에 양수해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품 사업부문 통합과 유상증자에 이어 앞으로 연구개발 인력을 크게 늘려 코오롱 그룹의 핵심사업 부문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현재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20.5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코오롱과 코오롱제약이 각각 11.76%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경수 기자>

<화학저널 2006/02/08>